

Brand Identity

## 2025 좋은이웃들 BI 디자인 공모전

소외된 우리 이웃 지킴이 라는 슬로건 아래, 이를 시각적으로 해석한 키워드는 보이지 않던 창을 두드리는 날갯짓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다시 바라보고, 연결하고, 지켜내는 움직임을 나비, 창문, 앰퍼샌드(&)의 구조로 풀어냈습니다.





## Brand Story

좋은이웃들은 복지 사각지대 속 신호를 발견하고, 외면받던 이웃을 다시 바라보는 작고 따뜻한 관심과 연결의 여정을 그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단지 보이지 않았을 뿐, 늘 창 너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창을 두드리는 날개짓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지의 시작이 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됩니다.

더듬이 - 발견  
숨겨진 신호



보이지 않던 이웃의  
신호를 발견하고,

날개 - 연결  
따뜻한 접점



당신의 연결은  
누군가의 날개가 됩니다.

하트 - 변화  
피어나는 마음



작은 관심은  
두마음을 이어주고,

꽃 - 희망  
새로운 삶



그 날개짓은 마침내  
희망으로 피어납니다.



## Brand Essence

보이지 않던 창 너머에 있었던 '소외된 우리 이웃'을 지켜내는 것

창 너머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내려는 태도가 좋은이웃들 BI의 본질입니다.  
연결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보호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 Brand Core Value

이웃의 신호를 발견하고,  
연결의 마음을 실천하며,  
삶의 변화를 이어가는  
태도를 핵심 가치로 삼습니다.

Core Value

01

발견

### Discovery

복지 사각지대는 정보보다 관심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던 신호를 감지하고, 숨어 있는 이웃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Core Value

02

연결

### Connection

도움은 단절된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웃과 마음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고, 낯선 관계를 공감의 연결로 바꿉니다.

Core Value

03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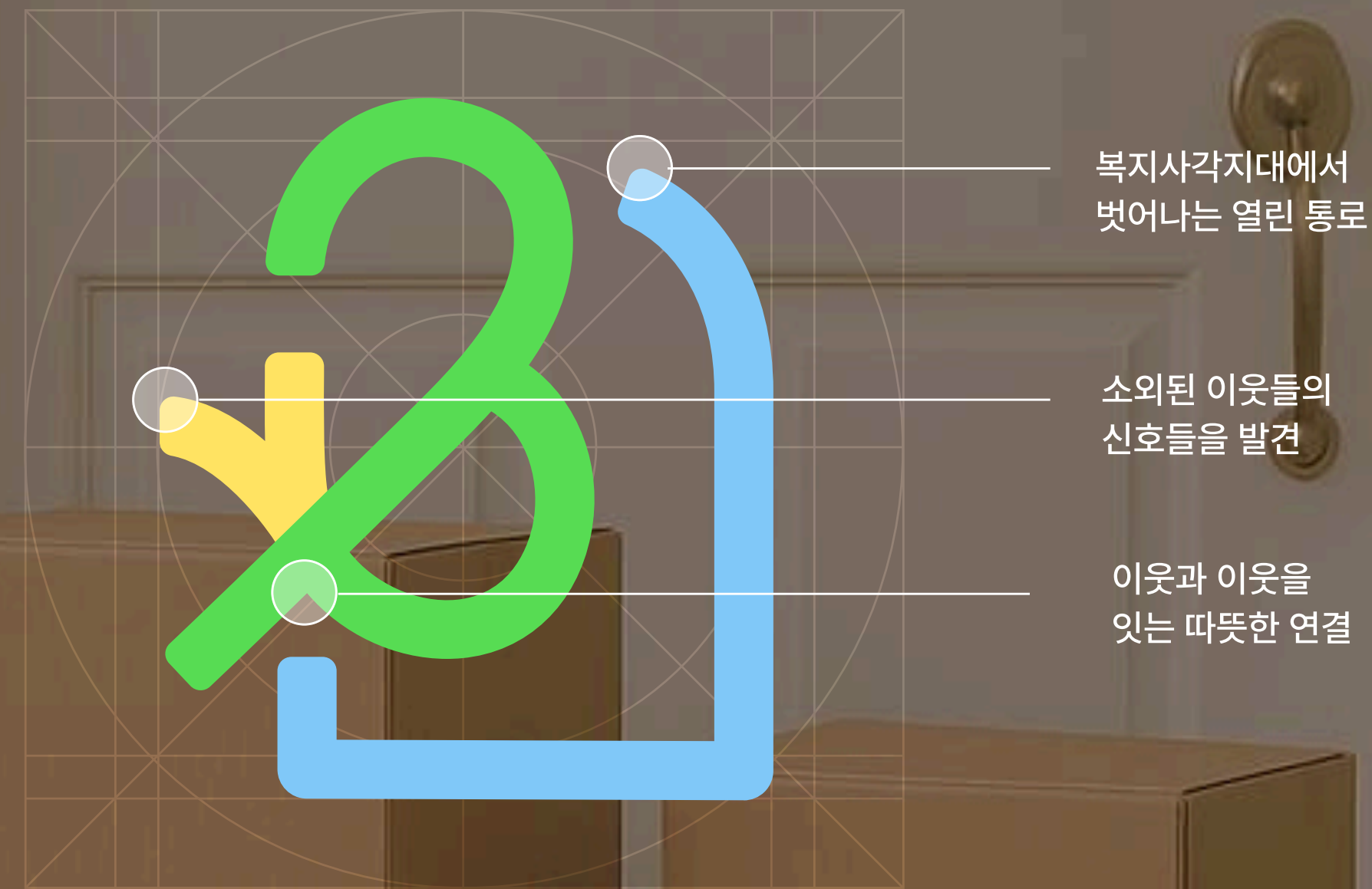
### Change

변화는 구호가 아닌 작은 일상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날갯짓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Brand Symbol

앰퍼샌드(&), 나비, 창문이 결합된 이 심볼은 복지의 흐름과 관계 회복, 보호의 실천을 시각화한 구조입니다. 닫혀 있던 창 안에 소외된 이웃을 향해 작지만 의미 있는 날갯짓을 전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앰퍼샌드 (&)

+



나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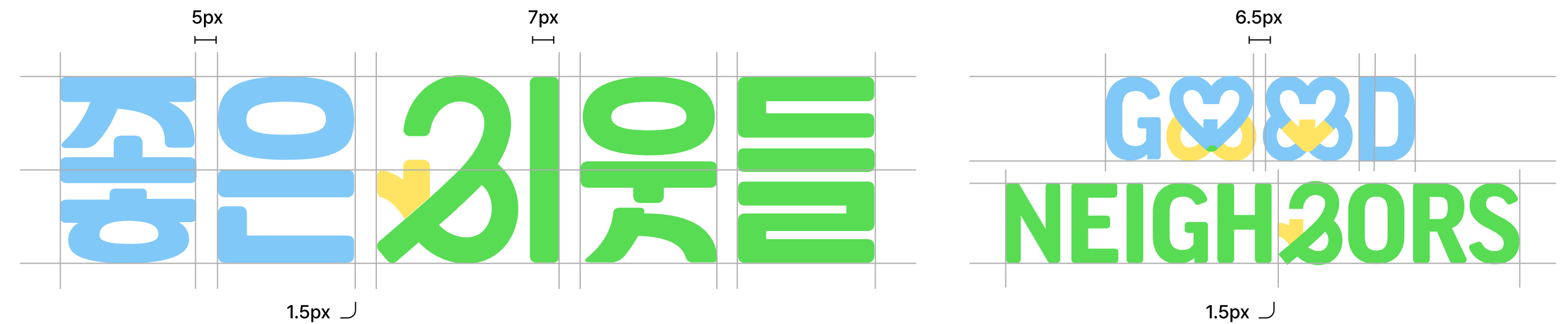


창문



## Brand Typography

좋은이웃들의 로고타입은 신뢰감과 따뜻함을 동시에 전달하는 서체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한글과 영문 각각의 개성이 조화를 이루며 브랜드의 메시지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Korean Typeface  
**YangJin-Che Bold**

# 가나다

소외된 우리이웃 지킴이

English Typeface  
**Puffin Display Soft**

# Aa

PROTECT ISOLATED NEIGHBORS

유쾌하고 볼드감과 독특한 획 구조

유려하면서도 힘 있는 획 구조가 특징인 서체로, '좋은이웃들'의 따뜻한 시선과 확신을 담아냅니다. 곡선과 직선의 조화 속에서 다양한 이웃을 향한 브랜드의 방향성을 표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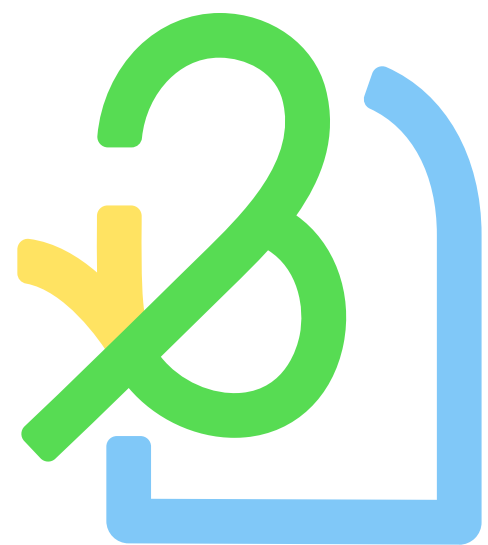
부드러운 곡선과 따뜻한 인상

부드러운 곡선과 긴 형태가 영문 로고에 따뜻한 인상을 더합니다. 한글 서체와의 조화를 고려해 친근하고 안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 Brand Logo & Color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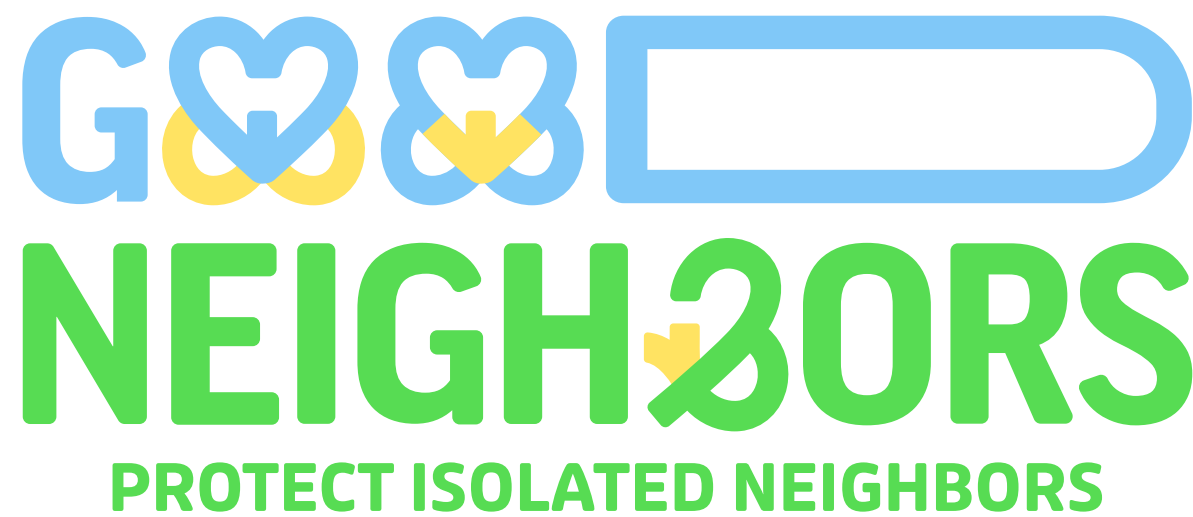
Symb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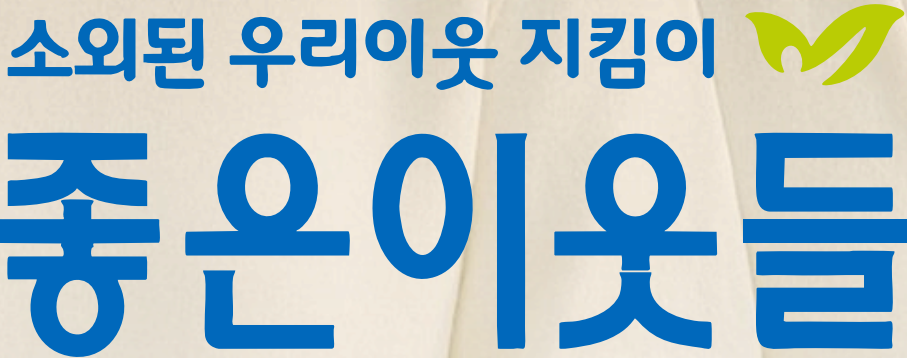
Wordmark



Slogan



AS - IS



TO - BE



Connecting Green  
이웃 & 이웃을 연결하는

#57DC53  
HSL 118° 66 59

Hope Sky Blue  
희망을 제공하는

#80C8F8  
HSL 204° 90 74

Seeking Yellow  
도움을 발견하는

#FFE362  
HSL 204° 90 74

Black  
#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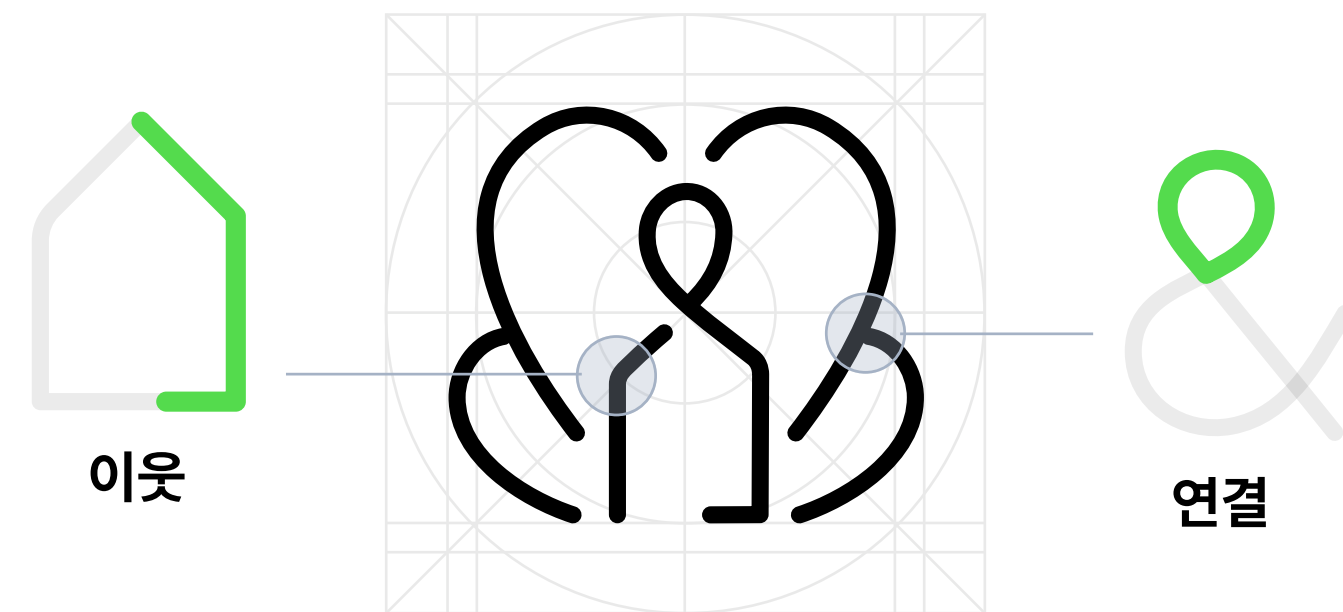
White  
#FFFFF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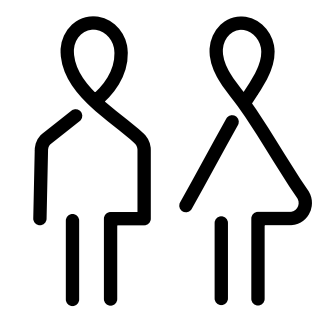


## Iconograp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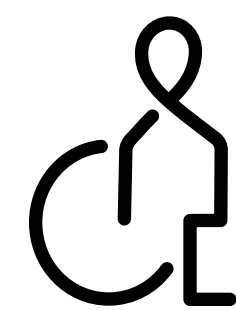
앰퍼샌드와 집 형태를 조합해 이웃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아이콘을 디자인했습니다.  
지원 항목에는 나비 모티프를 더해, 브랜드의 시각적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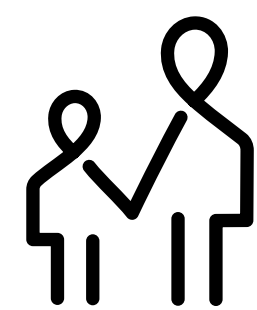
좋은이웃들 복지대상자  
우리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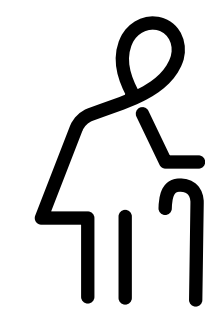
남자 / 여자  
우리의 이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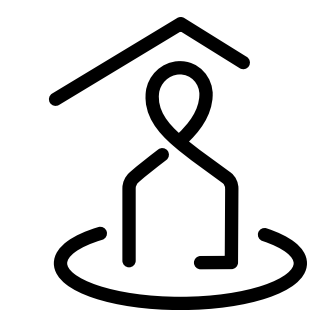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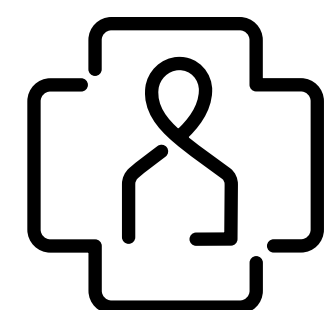
한부모가정  
생활이 어려운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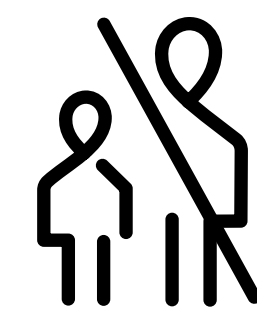
독거노인  
홀로지내는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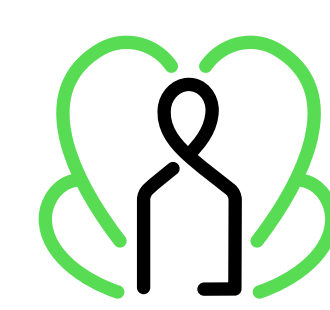
비정형 거주자  
일정한 집이 없는 이웃



피학대자  
위험속에 있는 이웃



위기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청이웃



복지대상자  
지원이 필요한 이웃

우리 동네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세요!

-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비정형 거주자
- 빈곤, 학대, 유기 및 방임으로 인한 피학대자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
- 그 밖에 기존 공적 지원체계로 발굴·지원이 어려운 복지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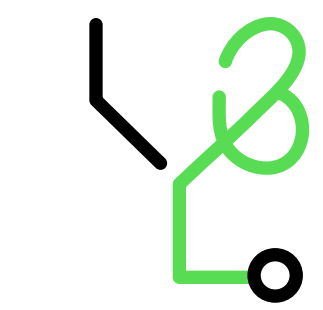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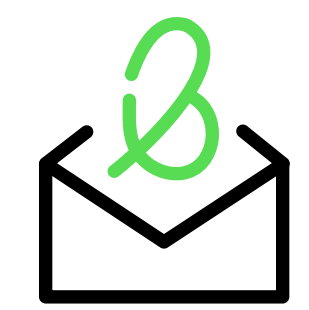
식생활 지원  
생활이 어려운



주거지원  
수도, 전기, 가스난방



의료지원  
질환에 대한 의료비



기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 Visual Language in Action

좋은이웃들의 디자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순간에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시각적 언어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일관된 메시지로, 복지의 신호를 일상의 장면 속에 조용히 심어둡니다.







Real-Life Touchpoints

정류장에 선 사람 & 벽에 기대 선 이웃 & 무심히 지나던 공간 속에 스며든 디자인은 작은 징후처럼 자리합니다. 그것은 발견이 되고 - 연결이 되고 - 복지의 시작이 됩니다.





좋은이웃들의 BI는  
보이지 않던 창 너머,  
지켜야 할 이웃을 봅니다.

‘보이지 않던 창을 두드리는 날갯짓’이라는 말처럼,  
조용하지만 진심 있는 움직임이 소외된 이웃을  
지켜내는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BI는  
그런 마음이 시각적으로 곁에 머무는 방식입니다.

